

변형 킬러 심화문제

고전  
산문

## 06강 대관제몽유록



서르사맛디  
이런전차로  
훈민정음  
세종어제

별 헤는 밤  
나는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국어로 찾는 사람들





# 변형 킬러 심화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로 그날 단기(單騎)로 길을 떠났는데, 다만 첨두노(尖頭奴) 몇 명만 데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 열흘이 채 못 되어 적의 성채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기(氣)를 돋우어 ㉠입술을 벌리고 한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만 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다.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리었고, 난새와 봉황이 엇갈려 날았으며, 바다와 산이 변색하고 천지가 떨리고 흔들렸다.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적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다. ㉡적장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했다.

“뜻밖에 문단의 노장 심 공께서 오셨구려!”  
나는 노포를 걸고 개신가를 불렀다.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셨으며,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오랑캐의 기병을 물리친 일이 있거늘,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보았노라.”

하시고, 배식사문 경문일시 진국공신의 호를 내리게 하고, 안동백에 봉했으며,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 김시습을 폐하여 좌선(坐禪)을 삼았다.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들어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벼슬한 지 10년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길러 문벌이 빛났으며,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쳤다.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신하 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읍하고 사양했다. 조정에 있는 백집사들은 음풍농월이나 하며 사치가 몸에 배었으므로,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여 대궐에 가서 항소하기를,

“이 아무개는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천자께서 그 아뢰는 것이 옳다 하여 나에게 오거서를 내리고 영경연사로 특진을 시키셨다.

벽부의 가운데뜰에는 옥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 깎고 새겨서 만들었다. 높이가 백 층이며 ‘사단’이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종자가 이것을 가리켜 말했다.

“이 단은 태산처럼 숭고하며 바위나 돌, 나무가 없어 비록 원숭이같이 날랜 것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힘이 미치지습니까?”

서리가 말했다.  
“단 위에 옥루가 있는데 조정 안의 재사들이 때로 서로 왕래하며 함께 모여 잔치하며 놀니다.”

하루는 천자께서 조회를 마치고 나서 문득 두 선녀가 난새와 학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나타나더니, 각자 조문희와 사자연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말했다.

“대당 천자이신 두보가 친구 이백을 붙잡아서 사단에 모였습니다. 멀리서 생황과 통소 소리를 듣고 탑 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천자가 깊은 궁궐로부터 나와 조용히 손을 맞잡고 활보하며 단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구름같이 하였다.

삼정승과 신하 몇 명이 겨우 중간층에 이르렀으나 다리가 떨려 두려워서 엎드려 한 사람도 시종을 하지 못했다. 내려다보니 한 이서가 문사로 배우의 희롱하는 말을 지어 바지를 치켜들고 역지로 살금살금 걸었지만, 첫 번째 층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보던 사람들이 무릎을 치고 나아가 물었더니 사문 이숙함이었다. 천자께서는 며칠을 머물면서 매우 즐기시다가 옥지를 내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하(李賀)를 보고 옥루기를 외우게 하고 왕희지가 쓴 글씨를 벽에 걸게 하였노라.”

하시고는 크게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두 천자는 문장으로 3백 편의 유작이 있고, 따르는 신하와 재자(才子)들로 한유, 유종원, 소식, 황정건 등의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 짐이 감히 당할 수가 없다. 하물며 ㉣짐의 여러 신하 중 한 사람이라도 이들과 같이 재능이 있는 자가 있는가?”

며칠이 지나 낮 시강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을 하고 통쾌한 표정으로 글 하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었다.  
“심 모는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하여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께서는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오!”

하고 대관 선생이라는 호를 내리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초목의 산하를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소. 경의 침인 옥란은 다시 집안 살림을 맡게 되어 내 명을 기 다리게 되었소.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머리를 섬뜩에 부딪치고 하직하였는데 눈물이 옷을 적시었다. 집안 식구를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상궁 이색이 등을 쓰다듬으며 험실로 껴 들어서 나를 난초 탕에 목욕시키고는 금 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아 놓은 먹물 몇 말을 들어부으며 말했다.

“40여 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배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파 갑자기 깨어나니,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고,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아!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달을 팔자소관이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이쩍은 이야기를 드러내어 꿈에 겪었던 일을 적는다. 가정 8년 12월 상한에 심이는 대관제에서 쓰다.

-심익, '대관제몽유록'



# 변형 킬러 심화 문제

## 0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의 결핍을 직접 고발하는 논설적 서술을 중심으로 삼아, 꿈속 사건은 주인공의 현실 비판을 보조하는 예시로만 기능하게 하고 있다.
- ② 꿈속 세계를 실제 역사 세계와 단절된 순수한 환상 공간으로 제시하여, 역사적 인물의 행적보다 초월적 기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에서 꿈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를 통해, 꿈속 문장 왕국의 영광과 현실의 궁핍이 서로를 반사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의 내면 독백만을 지속적으로 배열하여, 외부 사건보다 개인적 회한과 자기 연민의 정서가 서사의 전부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 ⑤ 전지적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를 균등하게 해설함으로써, 주인공과 주변 인물 사이의 인식 차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02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쟁에서 패배한 주인공이 현실로 돌아온 뒤 자기 죄를 반성하는 구조로, 꿈속의 위업은 주인공의 몰락을 예비하는 복선으로 기능한다.
- ② 현실의 여행에서 시작하여 입몽, 문장 왕국에서의 인정과 영광, 동료들의 시기와 탄핵, 현실 각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단계적으로 전개된다.
- ③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미 권력을 얻은 상태에서 꿈속 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다시 현실의 권력자로 복귀하는 구조이다.
- ④ 꿈속에서 여러 역사 인물이 차례로 등장하지만 사건의 인과가 약해, 주인공의 이동 경로보다 삽입된 고사 해설이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 ⑤ 현실과 꿈의 사건이 번갈아 교차되면서 동시에 진행되므로, 독자는 어느 사건이 현실이고 어느 사건이 꿈인지 끝까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 03

윗글의 '나'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속에서 얻은 지위와 명예를 현실에서도 곧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궁핍한 현실을 일시적 시련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 ② 문장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꿈속 왕국의 영광과 좌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의 가족을 버리고 초월적 세계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으나, 왕의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 귀환하고 있다.
- ④ 꿈속에서 받은 탄핵을 계기로 자신의 문장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현실에서는 글쓰기를 완전히 포기하려 하고 있다.
- ⑤ 꿈속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허망한 존재로 판단하여, 현실의 궁핍이 오히려 진실한 삶이라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04

윗글의 '꿈속 세계'가 지닌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문인이 문장 능력을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보상적 공간이다.
- ② 최치원, 김시습, 이규보, 이색 등 역사적 문인이 질서 안에 배치된 문장 중심의 왕국이다.
- ③ 문학적 재능과 정치적 권위가 결합되어 있어, 문장 능력이 곧 신분과 지위의 근거로 기능한다.
- ④ 현실의 결핍을 잠시 해소하지만, 시기와 탄핵, 귀환 명령을 통해 그 세계 또한 완전한 이상향이 아님을 드러낸다.
- ⑤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한 낙원으로, 권력 다툼이나 인물 간 경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안정된 공간이다.



# 변형 킬러 심화 문제

## 05

윗글의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잠에 든 현실 공간'은 결핍과 궁핍의 공간이고, '문장 왕국'은 재능의 인정과 권력적 질서가 실현되는 공간이며, '각몽 후 현실'은 두 공간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공간이다.
- ② '선잠에 든 현실 공간'은 이미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공간이고, '문장 왕국'은 그 성공을 풍자하기 위해 제시된 몰락의 공간이다.
- ③ '문장 왕국'은 현실과 달리 어떤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공간이며, '각몽 후 현실'은 그 평등이 지속되는 공간이다.
- ④ '현실-꿈-현실'의 공간 이동은 단순한 배경 전환일 뿐, 주인공의 인식 변화나 작품의 주제 의식과는 긴밀한 관련이 없다.
- ⑤ '각몽 후 현실'은 꿈속에서 이루어진 공적이 실제로 보상되는 공간이므로, 환몽 구조의 허무감은 약화된다.

## 0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몽유록계 소설은 주인공이 꿈을 매개로 현실과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취한다. 이때 꿈속 세계는 단순한 환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결핍, 억압,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장치가 된다. 특히 문인 주인공이 꿈속에서 왕이나 신하로부터 재능을 인정받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문장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보상 심리와 비판 의식을 함께 드러낸다.

- ① '나'가 꿈속에서 천자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인정 욕망의 보상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꿈속에서 문장 왕국의 신하들이 서로 시기하고 탄핵하는 장면은 꿈속 세계가 현실의 갈등과 권력 질서까지 변형하여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각몽 후 병든 아내와 궁핍한 현실이 제시되는 것은 꿈속 영광이 현실의 결핍을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함을 보여 준다.
- ④ 꿈속 세계가 역사적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작가가 문장 능력을 현실 권력과 무관한 순수한 개인 취미로만 이해했음을 뜻한다.
- ⑤ 꿈에서 깬 뒤 괴이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결말은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비판과 인생 무상을 함께 드러내려는 몽유록의 성격과 관련된다.

## 07

천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지만 김시습의 투항 이후부터 비로소 의심을 거두고, 주인공을 정치적 경쟁자로 인정한다.
- ② '나'의 무예적 활약과 문장 능력을 모두 높이 평가하며, 그 공로를 벼슬과 부귀로 보상함으로써 문장 왕국의 가치 체계를 드러낸다.
- ③ '나'가 현실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꿈속 세계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대한다.
- ④ '나'가 다른 신하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주인공의 고립과 몰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
- ⑤ '나'의 탄핵 상소를 받아들여 즉시 처벌하려 하지만, 주인공의 애원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한다.

## 08

김시습의 말과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난을 일으킨 인물로 등장하지만, 투항 후에는 주인공에게 진압 당함으로써 문장 왕국의 질서 안으로 편입된다.
- ② 주인공을 끝까지 적대하는 인물로, 각몽 직전까지 현실 세계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반복하여 주인공을 압박한다.
- ③ 문장 능력이 없는 무인으로 설정되어, 문장 왕국에서 배제되는 인물의 전형을 보여 준다.
- ④ 최치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려는 인물로, 현실 정치의 반역성을 직접적으로 상징한다.
- ⑤ 주인공이 현실에서 만난 실제 인물로, 꿈속의 사건과 현실의 사건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만 수행한다.

## 09

이규보가 '나'를 비판하는 대목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의 문장 능력이 실상 허약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꿈속에서 얻은 모든 영광을 무효화한다.
- ② 현실의 조정 질서가 문장 왕국보다 우월함을 입증하여, 독자가 꿈속 세계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게 한다.
- ③ 재능을 인정받은 주인공이 오히려 기존 문인 집단의 시기와 견제를 받는 상황을 드러내어, 꿈속 세계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 ④ 주인공이 신하의 도리를 저버리고 사적으로 교제했음을 폭로하여, 이후 주인공이 처형되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다.
- ⑤ 문장 왕국의 모든 인물이 주인공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주인공의 욕망이 근거 없는 허영임을 단정한다.



# 변형 킬러 심화 문제

## 10

‘삭단’이라는 액자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의 궁핍을 직접적으로 상징하여, 각몽 후 병든 아내의 모습과 곧바로 연결되는 물건이다.
- ② 천자가 주인공에게 부여한 벼슬의 상징으로, 주인공이 현실에서도 관리가 되었음을 알려 주는 증거이다.
- ③ 꿈속 세계 안에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오르기 어려운 높이와 경계를 형상화하여, 이후 주인공이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는 문턱을 마련한다.
- ④ 문장 왕국의 전쟁을 끝내는 무기로 기능하여, 김시습의 항복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 ⑤ 주인공의 문장 실력을 시험하는 책으로, 주인공이 이를 해석하지 못해 탄핵을 받는 원인이 된다.

##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공이 휘파람으로 적의 기세를 꺾는 장면으로, 꿈속 세계에서 ‘나’가 비범한 위력과 위엄을 발휘함을 보여 준다.
- ② ㉡: 김시습이 두 손을 묶고 투항하는 장면으로, 주인공의 활약이 반란 진압의 공적으로 인정되는 계기를 이룬다.
- ③ ㉢: 주인공이 사적 교제를 거부하는 말로, 꿈속 왕국 안에서 군신 관계와 공적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 천자가 신하들을 질책하는 말로, 주인공의 재능을 기준으로 기존 신하들의 능력을 상대화하고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 ⑤ ㉣: 천자가 주인공을 꿈속 세계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는 명령으로, 현실 복귀를 거부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완성되는 장면이다.

## 12

<보기>를 참고하여 ‘최치원’의 기능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의 꿈속 세계는 문인들이 다스리는 문장 중심 왕국이다. 최치원은 그 왕국의 천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문장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문장가로 기억되는 인물을 권위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문학적 재능이 현실 권력보다 우위에 놓이는 이상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 ① 최치원은 현실의 왕권을 부정하는 반역자로 설정되어, 주인공이 현실 질서에 맞서는 근거를 제공한다.
- ② 최치원은 문장 왕국의 최고 권위자로서 주인공의 재능을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현실에서 결핍된 문학적 인정의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 ③ 최치원은 주인공의 문장 능력을 의심하는 인물로, 이규보의 탄핵을 받아들여 주인공을 즉시 추방한다.
- ④ 최치원은 꿈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리하는 인물이므로, 주인공이 현실의 궁핍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만 한다.
- ⑤ 최치원은 주인공의 적장으로 등장하여 김시습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 13

윗글의 역사적 실존 인물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 실존 인물의 실제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재현하여, 고려와 조선의 문학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 ② 최치원, 김시습, 이규보, 이색 등을 문장 왕국의 질서 안에 재배치하여, 문장 능력을 둘러싼 인정과 경쟁의 상상적 세계를 구성한다.
- ③ 역사 인물들을 모두 현실 정치의 부패한 관료로 형상화하여, 문학보다 정치 현실의 타락을 직접 고발한다.
- ④ 실존 인물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그들의 문장 능력과는 무관하게 무력과 전쟁 능력만을 강조한다.
- ⑤ 역사적 인물들을 익명화하여 독자가 특정 시대나 문학 전통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차단한다.

## 14

윗글의 주제 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속의 문장 왕국을 통해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문인의 욕망을 보상하면서도, 각몽 후의 궁핍한 현실을 제시하여 현실 비판과 인생 무상을 함께 드러낸다.
- ② 꿈속의 왕국이 현실보다 완전한 세계임을 보여 줌으로써, 현실을 버리고 환상 세계로 도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 ③ 문장 능력보다 무예와 전쟁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문인의 허약함을 풍자하고 무인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 ④ 기존 문인 집단의 탄핵이 정당했음을 밝힘으로써, 주인공의 과도한 출세 욕망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⑤ 꿈속 체험이 모두 우연한 병리 현상일 뿐임을 강조하여, 초월적 세계나 문학적 상상력의 의미를 부정한다.



# 변형 킬러 심화 문제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과 몽자류 소설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몽유록계 소설은 대체로 꿈속 세계와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며, 꿈은 현실의 불만을 토로하거나 현실을 비판하는 통로가 된다. 반면 몽자류 소설은 꿈속에서 주인공이 다른 인물로 새롭게 태어나거나 다른 생을 살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구조가 두드러진다.

- ① 윗글의 '나'는 꿈속에서도 현실의 '심'과 연결되는 인물로 볼 수 있으므로, 몽유록계 소설의 특징과 관련된다.
- ② 윗글에서 꿈은 현실의 궁핍과 문인으로서의 인정 욕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므로, 현실 비판의 통로가 된다.
- ③ 윗글은 꿈속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인물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 구조가 중심이므로, 몽자류 소설의 전형에 더 가깝다.
- ④ 윗글의 각몽 장면은 꿈속 영광의 허망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생 무상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 ⑤ 윗글은 꿈을 모티프로 삼아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몽유 서사의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16

'문장 왕국'의 권력 질서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혈통과 무력이 권력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문장 능력은 인물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문장 능력이 정치적 인정과 결합되어 있으며, 뛰어난 문장가는 왕의 총애와 벼슬을 얻지만 동시에 기존 문인 집단의 견제를 받는다.
- ③ 모든 문인이 완전히 평등하게 대우받으므로, 천자와 신하의 구분이나 공적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주인공은 문장 능력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신분 때문에 등용되므로, 꿈속 세계의 질서는 현실 신분제를 그대로 복제한다.
- ⑤ 문장 왕국은 현실과 반대로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사라진 공간이므로, 갈등 없이 조화만 유지된다.

17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의 몽유자는 작가 심의와 겹쳐 읽힐 수 있다. 꿈속에서 주인공이 천자의 인정을 받고 부귀를 누리는 것은 작가가 현실에서 경험한 좌절을 상상적으로 보상받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꿈에서 깬 뒤 병든 아내와 궁핍한 현실이 다시 제시되면서, 환상적 보상은 현실의 결핍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결핍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 ① 꿈속에서 주인공이 벼슬과 영화를 누리는 장면은 작가의 현실적 결핍과 무관한 단순한 영웅담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각몽 후 병든 아내가 등장하는 장면은 꿈속 영광이 현실의 궁핍을 실질적으로 해결했음을 보여 주는 결말이다.
- ③ 꿈속의 인정과 현실의 궁핍이 대비되면서, 작가의 보상 욕망과 현실 인식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주인공이 꿈속에서 탄핵을 받는 장면은 작가가 문장 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 ⑤ 환상적 보상 구조가 있으므로, 윗글에는 현실 비판이나 인생 무상 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18

윗글의 표현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길게 서술하기보다 꿈속의 영화와 대비시켜 간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인물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문장 왕국을 그럴듯한 세계로 구성하고 있다.
- ③ 전투, 등용, 탄핵, 귀환 명령 등 사건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꿈속 세계의 서사적 긴장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각몽 후 현실에서 그대로 물질적 성취로 전환되도록 하여, 환몽 구조의 허망함을 제거하고 있다.
- ⑤ 문장 능력을 권력 질서와 연결함으로써, 작가가 지닌 문인 의식과 현실 비판 의식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 변형 킬러 심화 문제

## 19

‘다만 철두노 몇 명만 데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는 첫머리 설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미 군사적 권력을 장악한 인물임을 드러내어, 꿈속 전투 승리의 필연성을 확보한다.
- ② 주인공이 길을 떠나는 상황과 피로·졸음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후 입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사적 계기를 마련한다.
- ③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을 강조하여, 각몽 후 아내의 병고가 주인공의 죄에 대한 벌임을 암시한다.
- ④ 꿈속 왕국과 아무 관련 없는 현실의 풍경 묘사로, 독자의 긴장을 완화하는 장식적 역할만 수행한다.
- ⑤ 주인공이 실제로 대도에 도착했음을 증명하여, 꿈속 체험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

## 20

‘나’가 이규보에게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규보의 비판을 완전히 수용하여 자신의 문학적 능력 전체가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기 부정이다.
- ② 상대의 비판에 표면적으로는 겸손히 응답하면서도, 자신이 귀신처럼 날랜 문장력만은 지니고 있음을 은근히 내세우는 대응이다.
- ③ 문장 왕국의 질서를 부정하고 무력으로 이규보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숨기는 협박이다.
- ④ 천자 앞에서 신하의 도리를 거부하고 사적인 친분을 주장하기 위한 변명이다.
- ⑤ 자신이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함을 예감하고, 꿈속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다.

##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결말을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환몽 구조의 결말에서 주인공이 꿈에서 깨는 장면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기능만 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경험한 영광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독자는 꿈이 제공한 보상과 현실의 결핍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게 된다. 이 간극은 현실 비판, 인생 무상, 자기 성찰의 의미를 발생시킨다.

- ① ‘나’가 꿈에서 깬 뒤 병든 아내의 신음과 자신의 병고를 마주하는 장면은 꿈속 영화와 현실의 결핍 사이의 간극을 극대화한다.
- ② 각몽 장면은 꿈속에서 받은 벼슬과 부귀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 주어 환몽 구조의 허무감을 해소한다.
- ③ ‘괴이쩍은 이야기를 적는다’는 진술은 꿈속 사건을 완전히 부정하고, 문학적 기록의 의미를 삭제하려는 태도이다.
- ④ 결말에서 현실의 고통이 사라지므로, 독자는 꿈속 세계가 현실보다 우월한 세계였다는 결론만 얻게 된다.
- ⑤ 꿈에서 깬 뒤에도 천자의 명령이 현실에서 지속되므로, 현실과 꿈의 경계는 완전히 소멸한다.

## 22

윗글에 대한 감상을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수: 이 작품은 꿈속에서 문인들이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 능력이 현실의 정치적 지위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상상적 질서를 보여 주는 것 같아.
- ② 지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높은 벼슬과 영화를 누리는 것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문인의 욕망이 보상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어.
- ③ 철수: 하지만 꿈에서 깬 뒤 병든 아내와 궁핍한 현실이 제시되니까, 꿈속의 영광이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기보다는 현실의 결핍을 더 부각한다고 볼 수 있지.
- ④ 수아: 이규보의 탄핵은 꿈속 세계에도 시기와 경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그 세계가 완전한 이상향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
- ⑤ 현우: 결말에서 주인공이 꿈속의 부귀를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이 작품은 현실 비판보다 출세 성공담의 성격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아야 해.



# 변형 킬러 심화 문제

23

윗글에서 '천자의 귀환 명령'이 갖는 서사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꿈속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장면으로, 현실의 결핍이 완전히 소멸되는 계기이다.
- ② 주인공이 꿈속에서 누리던 영광을 중단시키고 현실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환상적 보상의 한계와 각몽의 필연성을 마련한다.
- ③ 주인공이 이규보의 탄핵을 받아 처형되는 장면을 대체하여, 꿈속 세계의 법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미 높은 관직을 얻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명령으로, 이후 현실의 성공담을 예고한다.
- ⑤ 김시습의 반란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군사 명령으로, 작품 후반부 전쟁 서사의 출발점이 된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풍자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꿈속 문장 왕국을 통해 현실을 직접 고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문장 능력이 뛰어난 자가 인정받는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역으로 현실에서는 그러한 재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드러낸다. 또한 꿈속에서도 인물들 사이의 시기와 탄핵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상 세계조차 현실의 권력 관계와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준다

- ① 문장 왕국에서 주인공이 인정받는 것은 현실에서 문인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 읽을 수 있다.
- ② 이규보의 탄핵은 꿈속 세계가 현실의 권력 관계와 경쟁 심리를 완전히 제거한 낙원이 아님을 보여 준다.
- ③ 각몽 후의 궁핍한 현실은 꿈속 보상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실 비판의 효과를 강화한다.
- ④ 최치원이 주인공을 등용하는 장면은 문장 능력이 권위의 근거가 되는 이상적 질서를 보여 주며, 현실과의 대비를 형성한다.
- ⑤ 꿈속 세계가 이상적으로 제시되므로, 현실의 문인 사회나 권력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의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5

윗글의 제목 '대관재몽유록'의 의미와 관련하여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관재'는 꿈속 왕국의 이름이고, '몽유록'은 실제 여행 기록을 뜻하므로, 제목은 역사 기행문의 성격을 강조한다.
- ② '대관재'는 작가와 관련된 공간명으로 볼 수 있고, '몽유록'은 꿈속 세계를 유람한 기록이라는 뜻이므로, 제목은 작가적 자아의 환몽 체험 기록이라는 성격을 드러낸다.
- ③ '몽유록'은 꿈을 부정하고 현실만을 기록한다는 뜻이므로, 제목은 환상적 요소가 없는 사실주의 소설임을 나타낸다.
- ④ '대관재'는 김시습의 호이고, '몽유록'은 김시습의 반란 기록이므로, 제목은 적장의 일대기를 뜻한다.
- ⑤ '몽유록'은 다른 인물로 다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 소설만을 뜻하므로, 윗글은 몽유록계가 아니라 영웅 군담 소설로 보아야 한다.

26

윗글 전체의 의미를 종합하여 작품의 핵심 독해 요소를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속 전투에서 김시습이 항복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무예 능력이 역사적 영웅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작품의 핵심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최치원이 천자로 군림하는 문장 왕국을 현실과 무관한 신선 세계로만 파악하고, 각몽 후 현실 장면은 서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부수적 장면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현실의 궁핍, 입몽 후 문장 능력의 인정, 꿈속 권력 질서의 갈등, 각몽 후 허망함을 연결하여 문인의 인정 욕망과 현실 비판, 인생 무상을 함께 읽어야 한다.
- ④ 이규보의 탄핵을 작품의 유일한 중심 사건으로 삼아, 주인공이 문장 능력 없는 인물로 판명되는 과정만을 분석해야 한다.
- ⑤ 병든 아내의 등장을 가족 윤리의 교훈으로만 해석하여, 문장 왕국의 구조나 역사적 문인 배치와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 정답 & 해설

01.

[정답] ③

(해설) 뒷글은 길을 떠난 현실에서 선잠에 들고, 꿈속 문장 왕국에서 인정과 시기, 귀환 명령을 겪은 뒤 다시 병고와 궁핍의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꿈속 영광과 현실의 결핍이 서로를 비추며 주제 의식을 만든다. [오답 피하기] ① 논설적 직접 고발이 중심이 아니다. ② 꿈속 세계는 역사적 문인과 현실 불만을 반영하므로 현실과 단절된 순수 환상이 아니다. ④ 내면 독백만으로 전개되지 않고 사건과 대화가 중심이다. ⑤ 모든 인물의 심리가 균등하게 해설되는 방식이 아니다.

02.

[정답] ②

(해설) 현실의 피로와 선잠이 입몽의 계기가 되고, 꿈속에서 천자의 인정과 부귀를 얻지만 이규보 등의 시기와 탄핵을 겪고, 끝내 천자의 명령으로 현실에 돌아오는 구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주인공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③ 현실의 권력자가 꿈속 권력을 재확인하는 구조가 아니다. ④ 사건 인과가 약한 고사 해설 중심 서사가 아니다. ⑤ 현실과 꿈이 동시에 교차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다.

03.

[정답] ②

(해설) 주인공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문인으로서의 인정 욕망을 꿈속 문장 왕국에서 보상받는다. 그러나 탄핵과 각몽은 그 욕망의 좌절과 현실 인식을 함께 드러낸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에서도 곧 실현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③ 현실 가족을 버리고 영원히 꿈에 머물고자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문장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⑤ 현실의 궁핍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04.

[정답] ⑤

(해설) 꿈속 세계는 문장 능력과 권위가 결합된 보상적 공간이지만, 시기와 탄핵이 존재하므로 완전한 낙원은 아니다. 따라서 갈등과 경쟁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 결핍을 보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역사적 문인들이 문장 왕국의 질서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문장 능력이 지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시기와 탄핵을 통해 이상향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05.

[정답] ①

(해설) 현실 공간은 피로와 궁핍, 병고의 공간이고, 꿈속 문장 왕국은 재능 인정과 권력 질서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각몽 후 현실은 꿈속 영화와 대비되어 허망함을 강화한다. [오답 피하기] ② 현실에서 이미 성공한 인물이 아니다. ③ 문장 왕국에는 천자와 신하, 벼슬 등 위계가 존재한다. ④ 공간 이동은 주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⑤ 꿈속 공적이 현실 보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06.

[정답] ④

(해설) 역사적 문인으로 구성된 문장 왕국은 문장 능력이 권위와 결합된 이상적 질서를 상상한 것이다. 이를 현실 권력과 무관한 개인 취미로만 보았다는 설명은 보기와 어긋난다. [오답 피하기] ① 인정 욕망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꿈속 세계에도 현실의 갈등과 권력 질서가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각몽 후 현실이 결핍을 선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환상 체험의 기록이 현실 비판과 인생 무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07.

[정답] ②

(해설) 천자는 주인공이 난을 진압한 공과 문장적 재능을 인정하여 상과 벼슬, 부귀를 내린다. 이는 꿈속 왕국이 문장 능력과 공적을 권위의 근거로 삼는 체계임을 보여 준다. [오답 피하기] ① 정치적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③ 처음부터 냉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④ 고립과 몰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⑤ 탄핵 장소 때문에 즉시 처벌하려 하지 않는다.

08.

[정답] ①

(해설) 김시습은 난을 일으킨 적장으로 등장하지만 주인공의 위력 앞에 투항한다. 이는 주인공의 꿈속 위업을 강화하는 사건이다. [오답 피하기] ② 김시습이 각몽 직전까지 귀환 명령을 반복하지 않는다. ③ 문장 능력 없는 무인으로만 설정된 것이 아니다. ④ 최치원의 명령을 거부해 독자 왕국을 세우는 인물로 볼 수 없다. ⑤ 현실에서 만난 실제 인물로 기능하지 않는다.

09.

[정답] ③

(해설) 이규보의 비판은 주인공이 천자의 총애를 받은 뒤 기존 문인 집단의 시기와 견제를 받는 상황을 드러낸다. 이로써 꿈속 세계도 완전한 이상향이 아님이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① 주인공의 모든 영광을 무효화하는 객관 증거가 아니다. ② 현실 조정이 문장 왕국보다 우월함을 입증하지 않는다. ④ 주인공 처형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⑤ 주인공의 욕망이 전적으로 근거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0.

[정답] ③

(해설) '삭단'이 걸린 높은 단과 그 위의 옥루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꿈속 세계의 높이와 경계를 형상화한다. 이후 주인공이 그곳으로 나아가므로 초월적 세계로 진입하는 문턱의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의 궁핍을 직접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다. ② 현실의 관직을 증명하는 벼슬 표지가 아니다. ④ 전쟁을 끝내는 무기가 아니다. ⑤ 문장 실력을 시험하는 책이 아니다.

11.

[정답] ⑤

(해설) ㉔은 천자가 주인공에게 현실의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대목이다. 꿈속 세계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귀환을 지시하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㉔은 주인공의 비범한 위력과 위엄을 드러낸다. ② ㉔은 반란 진압의 공적을 강화한다. ③ ㉔은 사적 교제를 거부하는 공적 질서 의식을 드러낸다. ④ ㉔은 주인공의 재능을 기준으로 신하들을 상대화하는 말이다.

12.

[정답] ②

(해설) 최치원은 꿈속 문장 왕국의 최고 권위자로서 주인공을 인정하고 보상한다. 이는 현실에서 결핍된 문학적 인정 욕망을 환상적으로 실현하는 장치이다. [오답 피하기] ① 반역자로 설정되지 않는다. ③ 주인공을 의심하고 즉시 추방하는 인물이 아니다. ④ 현실 인식을 차단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⑤ 김시습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 적장이 아니다.



# 정답 & 해설

13.  
[정답] ②  
(해설) 뒷글은 최치원, 김시습, 이규보, 이색 등의 역사적 문인을 문장 왕국의 질서에 재배치하여 문장 능력의 인정과 경쟁을 환상적으로 구성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객관적 문학사 정리가 목적이 아니다. ③ 모든 인물을 부패 관료로 형상화하지 않는다. ④ 무력과 전쟁 능력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⑤ 역사 인물들을 익명화하지 않는다.

14.  
[정답] ①  
(해설) 작품은 꿈속 문장 왕국에서 문인의 욕망을 보상이지만, 각몽 후 현실의 궁핍과 병고를 제시하여 그 보상의 허망함과 현실 비판, 인생 무상을 함께 드러낸다.  
[오답 피하기] ② 환상 세계로 도피하라는 교훈이 아니다. ③ 무인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④ 주인공의 출세 욕망만을 비판하는 작품이 아니다. ⑤ 문학적 상상력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15.  
[정답] ③  
(해설) 뒷글의 주인공은 꿈속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새로 태어나 한평생을 사는 인물이 아니다. 현실의 심의와 꿈속의 '나'가 연결되는 몽유록계 구조에 가깝다.  
[오답 피하기] ① 몽유록계 특징에 부합한다. ② 꿈이 현실 불만의 통로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각몽이 인생 무상과 연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16.  
[정답] ②  
(해설) 문장 왕국에서는 문장 능력과 정치적 인정이 결합되어 벼슬과 총애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 인정은 기존 문인들의 시기와 견제를 동반한다.  
[오답 피하기] ① 문장 능력이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 ③ 천자와 신하의 위계가 존재한다. ④ 현실 신분제가 그대로 복제된 것이 아니다. 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공간이 아니다.

17.  
[정답] ③  
(해설) 보기의 관점에서는 꿈속 인정이 작가의 보상 욕망을, 각몽 후 현실이 결핍의 지속을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층위의 대비가 작품의 핵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단순 영웅담으로만 볼 수 없다. ② 각몽 후 현실은 꿈속 영광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④ 탄핵은 문장 능력 자체의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 ⑤ 현실 비판과 인생 무상 의식이 개입한다.

18.  
[정답] ④  
(해설) 꿈속 사건은 각몽 후 현실의 물질적 성취로 전환되지 않는다. 오히려 꿈속 영화가 사라지고 병고와 궁핍이 남아 환몽 구조의 허망함이 강화된다.  
[오답 피하기] ① 꿈속 영화와 현실 고통의 대비가 나타난다. ② 역사 인물과 상상력이 결합된다. ③ 사건 배열이 꿈속 서사의 긴장을 만든다. ⑤ 문장 능력과 권력 질서가 연결되어 문인 의식과 현실 비판이 드러난다.

19.  
[정답] ②  
(해설) 첫머리의 여행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동은 피로와 졸음을 발생시켜 선잠과 입몽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서사적 조건이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의 군사 권력을 장악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아니다. ④ 단순 장식적 풍경 묘사만은 아니다. ⑤ 꿈속 체험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20.  
[정답] ②  
(해설) 주인공은 이규보의 비판에 겸손하게 응답하지만, '귀신처럼 날랜' 문장력만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한다. 이는 표면적 겸양과 은근한 자기 긍정이 결합된 대응이다.  
[오답 피하기] ① 문학 능력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③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협박이 아니다. ④ 사적 친분을 주장하는 변명이 아니다. ⑤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 아니다.

21.  
[정답] ①  
(해설) 각몽 후 병든 아내와 자신의 병고를 마주하는 장면은 꿈속 부귀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간극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현실 비판과 인생 무상, 자기 성찰의 의미가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② 꿈속 벼슬과 부귀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③ 기록 행위는 문학 적 의미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⑤ 천자의 명령이 현실에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22.  
[정답] ⑤  
(해설) 결말에서 주인공은 꿈속 부귀를 현실에서 이어받지 못한다. 오히려 병고와 궁핍을 마주하므로 출세 성공담으로 보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문장 중심의 상상적 질서를 말한 내용은 적절하다. ② 인정 욕망의 보상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꿈속 영광이 현실 결핍을 부각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이규보의 탄핵을 통해 꿈속 세계의 불완전성을 읽는 내용은 적절하다.

23.  
[정답] ②  
(해설) 천자의 귀환 명령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누리던 영화와 인정을 중단시키고 현실로 돌아가게 한다. 따라서 환상적 보상의 한계와 각몽의 필연성을 만든다.  
[오답 피하기] ① 영원한 체류의 승인이 아니다. ③ 처형 장면을 대체하거나 범질서 붕괴를 뜻하지 않는다. ④ 현실의 관직 획득을 예고하지 않는다. ⑤ 김시습의 반란 재개를 알리는 군사 명령이 아니다.

24.  
[정답] ⑤  
(해설) 꿈속 세계가 이상적으로 구성되지만 그 자체가 현실 비판의 우회적 장치이다. 따라서 비판적 의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주인공의 인정은 현실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② 이규보의 탄핵은 이상 세계의 불완전성을 보여 준다. ③ 각몽 후 현실은 비판 효과를 강화한다. ④ 최치원의 등용은 문장 능력이 권위의 근거가 되는 질서를 보여 준다.

25.  
[정답] ②  
(해설) '대관재'는 작가 심의와 관련된 공간명으로 볼 수 있고, '몽유록'은 꿈속 세계를 유람한 기록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목은 작가적 자아의 환몽 체험 기록이라는 성격 을 드러낸다.  
[오답 피하기] ① 꿈속 왕국의 이름이나 실제 여행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③ 환상 요소가 없는 사실주의 소설이라는 뜻이 아니다. ④ 대관재는 김시습의 호가 아니다. ⑤ 몽유록을 몽자류 구조로 한정할 수 없다.

26.  
[정답] ③  
(해설) 작품의 핵심은 현실의 결핍, 꿈속 문장 능력의 인정, 꿈속 권력 질서의 갈등, 각몽 후 허망함을 종합하여 문인의 인정 욕망과 현실 비판, 인생 무상을 함께 읽는 데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무예 능력만을 핵심으로 보면 문장 왕국과 환몽 구조를 놓친다. ② 꿈속 세계를 현실과 무관한 신선 세계로만 보면 현실 비판을 놓친다. ④ 이규보의 탄핵만이 유일한 중심 사건은 아니다. ⑤ 병든 아내의 장면만 가족 윤리로 분리하면 환몽 구조의 의미를 놓친다.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공유, 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용을 원하시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